



인쇄단체장·한솔제지대표, 인쇄용지 인상 관련 긴급 간담회 “기습인상 부당 ... 인쇄산업 건실해야 제지산업도 건강” “제지사도 적자 ... 인상요인 발생시 설명회 개최할 것”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김남수),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고수곤), 대한인쇄기술협회(회장 김진배),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남원호), 대한인쇄연구소(이사장 서병기) 등 인쇄 단체장은 지난 4월 5일 오전 11시 한솔제지 본사를 방문해 한솔제지 관계자들과 인쇄업계 현안 및 인쇄용지 가격 인상에 대해 긴급간담회를 가졌다. 한솔제지 측에서는 이상훈 사장, 최원경 본부장, 강태윤 상무, 박삼환 팀장, 함대욱 대리가 참석했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이상훈 한솔제지 사장은 간담회에서 “국내외적으로 인쇄업계는 물론 제지업계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최근 이루어진 인쇄용지 가격 인상에 대해 저희 나름대로의 입장을 설명하고, 인쇄업계의 현황은 어떤지 경청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두 업계 모두 어려운 가운데 만난 만큼 지혜를 모으고 건설적인 대화가 오갈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남수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은 “한솔제지에서 인쇄업계와 소통할 수 있는 대화 창구를 마련해줘 감사하다”라며 “오늘 이 자리는 누구를 질타하거나 무시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제지업계를 이해하고, 제지업계가 인쇄업계의 현실을 직시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로의 애로사항을 경청

해 발전적인 대화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수곤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인쇄업계의 경우 정부나 공공기관과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인쇄물 연간 계약을 체결하는데, 연간계약체결 후인 3월에 종이가격을 올리면 인쇄업계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며 “한솔제지가 적자를 보더라도 종이가격을 올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이왕 종이가격을 인상한다면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예고해 인쇄사들이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종이가격인상 시기가 일방적인 방식이 아닌 서로 대화를 통해 이뤄졌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남원호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은 “한솔제지와 인

쇄업계는 공생관계에 있다.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는 인쇄용지 공급에 따른 오랜 관행을 미래지향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라며 “신뢰를 바탕으로 한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인쇄용지 가격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 할인율을 적용하는 지금의 방식이 아닌 권장소비자가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인쇄용지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경우 근거를 제시하고 고시가를 통해 가격을 인상했으면 좋겠다. 대기업인 한솔이 인쇄업계와의 동반성장으로 사회적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러한 인쇄업계의 요구에 대해 최원경 한솔제지 본부장은 “인쇄용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원료인 펄프와 부재료, 에너지 가격이다. 우선 펄프가격의 경우 400~500달러 이하로 가격이 형성된 적이 있었지만 칠레 대지진 이후 870달러까지 상승했다. 최근 5년 동안 평균가격은 640달러인데, 지금은 720달러에 달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산업인 제지산업은 유가와 전력가격에 큰 영향을 받는다. 전력단가는 매년 4~6%가 인상되고 있으며, 유가 역시 2009년 이후 내려간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계속 오르고 있다”라며 “인쇄업계가 어렵다고 하지만 제지업계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계성제지가 문을 닫고 흥원제지가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한솔제지 역시 지난해 8월 이후 계속 적자가 계속되고 있어, 역삼동 사옥도 팔고, 을지로로 임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종이가격을 불가피하게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남원호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은 “한솔제지가 종이가격을 인상한 이유에 대해서는 공감이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종이가격을 인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오늘처럼

인쇄인들에게 종이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요인을 정확히 설명해 주고, 용지가격을 고시가격을 인상해 받으면 된다. 할인율 축소가 아닌 고시가 인상으로 종이가격을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수곤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출판업계는 자유경쟁에 위배하는 도서정가제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이는 문화산업이 어렵다보니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인쇄산업 역시 마찬가지다. 이부제로 철야작업을 하며 일하고 있지만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종이가격마저 갑작스럽게 인상하면 우리는 그대로 쓰러질 수밖에 없다. 한솔제지측에서는 종이가격을 이미 인상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남수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은 “한솔제지에서는 종이가격 인상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지만, 인쇄업계는 대내외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파트너십을 갖고 함께 성장해 나가려면 어느 한쪽의 희생만 강요해서는 안된다. 인쇄업계가 건실하게 성장하는 것이 제지업계의 성장동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원경 한솔제지 본부장은 “인쇄업계와 제지업계는 한 배를 탄 식구라고 생각한다. 인쇄업계가 어렵다는 것은 듣기도 하고, 직접 보기도 해서 잘 알고 있다. 우리 역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문제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 본부장은 또한 “최근에는 환경변화가 급격히 일어나 당장 다음 달의 일도 예측하지 못한다. 우리 역시 종이가격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다가 어쩔 수 없을 때 인상한다. 앞으로는 종이가격 인상요인이 있으면 설명회를 통해 사전에 공감대를 갖고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한인쇄문화협회
김남수 회장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고수곤 회장



대한인쇄기술협회
김진배 회장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남원호 이사장



대한인쇄연구소
서병기 이사장



한솔제지
이상훈 사장



한솔제지
최원경 본부장

“파트너십을 갖고 함께 성장해 나가려면
어느 한쪽의 희생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우리 역시 종이가격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다가 어쩔 수 없을 때 인상한다”